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연구

- 철원군 유곡리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laceness Utilizing Everyday  
Life Place Memory

- The Case of You-gok ri Minbuk Viliage in  
Cheorwon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기 영

#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연구

- 철원군 유곡리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경 진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기 영

김기영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연구

- 철원군 유곡리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기영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8월

위원장 孫鎬勳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이재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원 조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초 록

##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연구 : 철원군 유곡리 민북마을을 중심으로

김 기 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철원은 한국 전쟁의 주요 접전지역이자 휴전 이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도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환경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에 의해 건설된 ‘민북마을’은 접경지역인 철원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원군 근북면에 위치한 유곡리 마을은 철원의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선전마을이다. 민북마을은 국가전략에 의해 건설된 특수한 공간으로, 일반 농촌 마을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DMZ의 주요 잠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외되어 왔고, 게다가 일반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마을소멸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DMZ의 주요 자원이지만 소외되어 있는 민북마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접근성의 부재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철원 근북면에 위치한 유곡리 통일촌 마을을 대상지로 삼았다. 민북마을은 국가 주도하에 지어진 선전 마을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장소성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곡리 마을의 공간의 사회·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자원 및 주민들의 기억을 수집 및 분류하여, 현재 유곡리 마을의 장소성을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한 대상지의 마을 자원 요소를 추출하고, 자원요소를 바탕으로 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한 유곡리 민북마을의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소기억은 일상 생활 기억으로 확대하였고, 장소를 중심으로 남겨진 일상 기억으로 보았다. 이에 먼저 장소기억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 내 특징적인 장소를 나열하였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자 하였다. 마을 내 장소는 총 9곳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 또는 1:2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기억을 통한 유곡리 마을의 장소성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형태로만 지어진 공간으로 처음부터 실패한 마을이자 마을이라고 할 수 없었던 마을이다. 전시적 성격이 강했던 집이었기에 물리적 공간만 덩그러니 주어졌고, 주변에 겨우 초등학교만이 있었다. 게다가 경비가 삼엄해 바깥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주민들은 4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장소이다.

둘째,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군사적 목적은 사라지고, 점차 일상적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유곡리 마을은 국가에 의해 지어진 군사적 목적이 뚜렷한 통일촌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비밀상성 속에서 집이라는 일상적 개념이 상충되면서 유곡리 마을은 계속 변화해왔다.

셋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리적 구조도 쇠퇴하고 주민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민북마을은 접경지역의 유산으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북마을이 담고 있는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모색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겨진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간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비한 마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생활사와 같은 개인의 경험과 의미에 중심을 둔 심층인터뷰가 역사적 고증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유곡리 마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 집단 인터뷰이가 적어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  
**주요어 : 장소성, 장소기억, 통일촌, 민북마을**  
**학 번 : 2018-24754**

# 목 차

##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04
1. 연구의 범위 .....	04
2. 연구의 방법 .....	04
3절. 연구의 진행과정 .....	06

##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민간인통제선과 민북마을 .....	07
1. 민간인통제선의 이해 .....	07
2. 민북마을의 이해 .....	10
2절. 민북마을의 가치요소와 자원유형 .....	17
1. 민북마을의 가치요소와 미래 잠재성 .....	17
2. 민북마을의 특징 및 자원 .....	19
3절. 장소성과 장소기억 .....	21
1. 장소와 장소성 .....	21
3. 장소기억의 개념과 특성 .....	24

## 제3장 대상지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1절. 대상지의 이해 .....	27
1. 유곡리 민북마을의 개요 .....	27
2. 유곡리 민북마을의 형성과정 .....	28

3. 마을 구조 .....	30
<b>2절. 대상지 현황 및 분석 .....</b>	<b>32</b>
 <b>제4장 일상 생활 기억을 활용한 장소성 해석</b>	
<b>1절. 장소기억 개념을 통한 주민 일상 생활 기억 수집 .....</b>	<b>35</b>
1. 마을 내 주요 장소 추출 .....	35
<b>2절. 일상 생활 기억을 활용한 장소성 해석 방법 .....</b>	<b>37</b>
1. 마을 내 주요 장소를 통한 일상 생활 기억 심층 인터뷰 .....	37
2. 인터뷰 수집 및 분류 .....	39
3. 일상 생활 기억을 활용한 장소성 해석 .....	47
 참 고 문 헌 .....	 51
Abstract .....	56

**[표 차례]**

[표 1] 법률 상의 민간인 통제선 범위 변화 .....	9
[표 2] 지역유형별 민북마을의 수(초기) .....	10
[표 3] 지역유형별 민북마을의 감소 수 .....	11
[표 4] 민북마을의 현황 .....	11
[표 5] 철원군 근북면 인구 현황 .....	14
[표 6] 민북마을 관련 선행연구(강원도 중심) .....	16
[표 7] DMZ일원의 대표 자원 속성 .....	18
[표 8] 장소의 정의 .....	22
[표 9] 장소기억의 형성 요소 .....	26
[표 10] 마을 공간 자원 .....	36
[표 11] 인터뷰 질문(예시) .....	37
[표 12] 마을 주민 인터뷰집단 .....	38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그림 2 연구 흐름도 .....	6
그림 3 민간인 통제선과 민복마을 .....	7
그림 4 유곡리 민방공 대피소 .....	20
그림 5 민복마을 주택번호 .....	20
그림 6 도창리 검문소 임시 출입증 .....	20
그림 7 장소성 형성 과정 .....	24
그림 8 기억의 층위 .....	24
그림 9 장소기억기반의 장소성 형성 과정 .....	26
그림 10 유곡리 통일촌의 위치 .....	27
그림 11 이길리 검문소와 도창리 검문소 .....	28
그림 12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 모습 .....	29
그림 13 단지 내 가로체계와 가구 호수 배치 .....	30
그림 14 유곡리 입주 당시 전경 .....	31
그림 15 2002년 만든 통일촌 입주기념비 .....	31
그림 16 1973년 입주 당시 심어진 기념식수 .....	31
그림 17 유곡리 마을 현황 .....	32
그림 18 주택 원형 .....	33
그림 19 주택 확장 .....	33
그림 20 비닐하우스 .....	34
그림 21 개조된 주택과 주택 정원 .....	34
그림 22 비닐하우스 제거 후 태양광 설치 .....	34
그림 23 주민 인터뷰 실행 과정 .....	38
그림 24 주민 심층 인터뷰 실행 .....	39
그림 25 입주 당시 및 군사관련 기억 .....	42
그림 26 학교 여가활동 관련 기억 .....	44
그림 27 주택, 업무, 기타 기억 .....	46

# 제1장 서론

##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원은 한국 전쟁의 주요 접전지역이자 휴전 이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도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환경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에 의해 건설된 ‘민북마을’은 접경지역인 철원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원군 근북면에 위치한 유곡리 마을은 철원의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선전마을이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중심으로 남북 2km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가 형성되었다. 귀농선 설정을 시작(엄대용, 2002)으로 남방한계선<sup>1)</sup>(Southern Limit Line, SLL) 남쪽으로 5-10km의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CCL, 이하 민통선)이 설정되었다.<sup>2)</sup> 민통선북방마을(이하 민북마을)은 민간인 통제구역(Civilian Control Zone, CCZ)의 출입 및 입주영농이 허가되면서 형성되었고, DMZ 접경지역<sup>3)</sup>에는 총 123개의 민북마을이 조성되었다(엄대용 2002; 정해용, 2017; 박한솔 외, 2020).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민간인 통제구역이 축소되고 있다(엄대용, 2002; 박한솔 외, 2020). 이에 따라 민북마을이 해체되어 현재는 55개의 민북마을만이 남아있다. 2021년,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100.67km<sup>2</sup> 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2021).

민북마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유산이자 DMZ 접경지역의 중요한 지역자산이다. 민통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장기간 통제된 공간

1)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말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 대한민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며, 냉전의 공간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DMZ 접경지역은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탐조관광), 농촌관광을 주 관광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사업은 민북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문제의식을 두었다. 민북마을은 국가전략에 의해 건설된 특수한 공간으로, 일반 농촌 마을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마을소멸이 예견되는 상황이다(박한솔 외, 2021).

연구의 대상지인 철원군 유곡리 민북마을은 남방한계선과 불과 1km도 안되는 곳에 위치한 통일촌 마을이다. 통일촌 마을은 파주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 두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곡리는 수복지구 내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파주 백연리마을 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북한 오송산에서 바로 관측가능하여 선전마을의 특징을 더 띄고 있다. 1973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통일촌은 입주민들에게 집 한 채, 논과 밭, 부속건물 한 채 등 동일한 형태로 주어졌다. 냉전지역의 생활공간으로 일반적인 생활공간에서 살펴볼 수 없는 지역자산이 존재한다. 하지만 민북마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 농촌마을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민북마을의 지역자산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타 민북마을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빈집이 많아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소멸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유곡리 마을은 분단 국가의 현실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DMZ접경지역의 자연 환경, 관광, 평화, 통일 등에 주목하였고, 민북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삶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민북마을 연구는 주민 인터뷰를 통한 구술사 연구나 입주 과정 변화, 토지이용변화, 민북마을 분포에 관한 분석연구로 한정되어있다. 유곡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진행한 조사연구에서 주목하였다. 이희연 외(2016)

는 유곡리의 장소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발굴 작업에 집중했고, 전상인·이종겸(2017)은 고도 근대주의의 산물로 국가촌락 사업에 대해 주목하여 유곡리를 사례로 연구했지만 국가 촌락 계획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후 조성아(2017)는 유곡리의 일상적 정원에 주목하여 유곡리 정원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박소영 외(2018)은 철원군 유곡리와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화 하였다. 박한솔 외(2020)은 살아있는 유산의 개념으로 이길리와 유곡리의 민북마을을 공간 구조, 주민 공동체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DMZ의 주요 자원이지만 소외되어 있는 민북마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접근성의 부재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철원 근북면에 위치한 유곡리 통일촌 마을을 대상지로 삼았다. 민북마을은 국가 주도하에 지어진 선전 마을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장소성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곡리 마을의 공간의 사회·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자원 및 주민들의 기억을 수집 및 분류하여, 현재 유곡리 마을의 장소성을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 인간의 행위로 인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겨진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대비하여 마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통일촌 유곡리 마을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유곡리 마을이 조성된 197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출처: 구글어스 2021.2.27.)

본 연구에서는 장소기억의 개념을 일상 생활 기억으로 확대하여 비장소성 기억과 장소성 기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장소성은 외부인이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지인 민북마을은 외부와의 접근성이 차단되어 있는 특수한 장소로 외부인은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주민, 즉 내부자들의 집단 기억만으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한 대상지의 마을 자원 요소를 추출하고, 자원요소를 바탕으로 주민 심층 인터뷰를 통한 유곡리 민북마을의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 문헌 조사,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터뷰를

통한 장소성 해석이다. 본 연구에서 장소기억은 일상 생활 기억으로 확대하였고, 장소를 중심으로 남겨진 일상 기억으로 보았다. 이에 먼저 장소기억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분석하였고, 대상지 분석을 통해 장소기억 개념에 부합하는 마을 자원 요소 9곳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9곳을 군사 관련, 학교, 여가, 주택, 종교, 업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는 장소성의 구성 요소 중 인간의 활동, 즉 경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대상지를 경험해온 집단 기억의 층위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민 심층인터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마을 이장님께 적절한 정보제공자를 제공 받아 인터뷰 집단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광장에 무작위 적으로 방문하여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공통 질문을 포함하여 추출한 마을 자원 요소에 기반하여 일상기억, 사건과 일화 중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피면담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는 달리하되, 내용 체크를 통해 빠짐없이 질문하였고, 가능한 피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절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의 진행과정은 크게 이론적 고찰, 대상지의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인터뷰를 위한 장소 추출, 추출한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 인터뷰를 통한 마을 장소성 해석으로 진행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 심층인터뷰, 의미해석을 수행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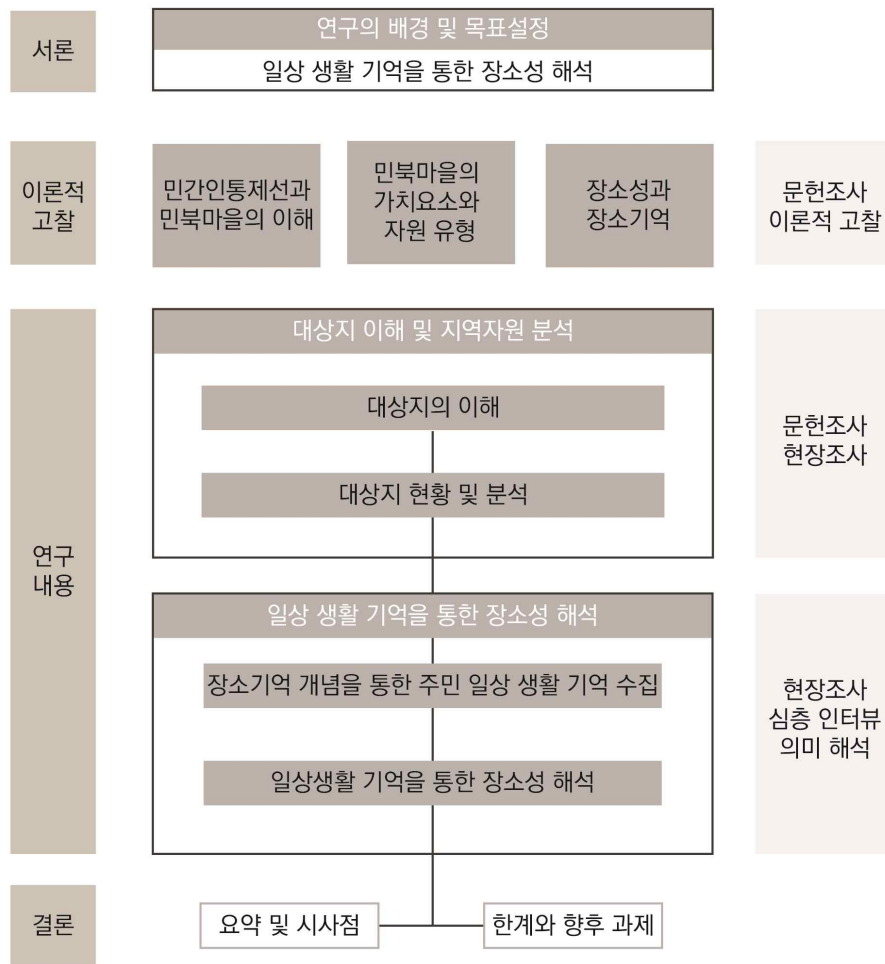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 제2장 이론적 고찰

### 1절. 민간인통제선과 민북마을의 이해

#### 1. 민간인통제선의 이해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한반도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형성되었고,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 남쪽으로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한 민간인통제선(民間人統制線, Civilian Control Line, 이하 민통선)이 설정되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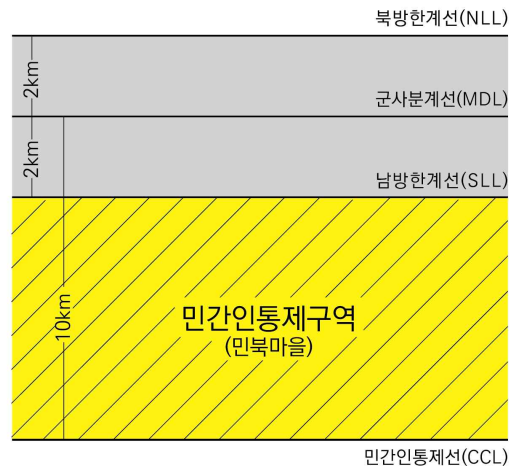


그림 3 민간인 통제선과 민북마을

민통선은 1981년 『군사시설 보호법』 1차 일부 개정 시, 명시된 법률용어이다.<sup>4)</sup> 그러나 민통선이 처음 설정된 것은 훨씬 이전이다. 김인경(1965)의 연구에서 민통선의 처음 설정이 서술된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동일하게 서술하

4) 민통선이 국내법에 처음 규정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349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1.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민간인통제선(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휴전선남방 5킬로미터 내지 2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북방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이다.



고 있다.

“미8군 CxG C-P 370.42호에 의거하여 1954년 2월 3일 민간인통제선(귀농선)이 설정되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지역내에서 입주영농을 절대불허하고 출입영농만을 허락하여 왔으나 휴전후 장구한 시일이 흐름에 따라 주로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입주영농이 수개지역(數個地域)에서 허용되어 오고 있다.”

-김인경(1965),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고찰』, 국방연구, p260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간인통제구역>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 제 8군사령관 직권으로 DMZ와 인접한 지역에 민간인이 귀농해 농사를 짓는 것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디엠지기, <민간인 통제구역>, 행정안전부

그러나 최근 한모니까(2020)는 민통선은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귀농선에서 바뀐 것이 아닌 한국전쟁 중에 설정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 서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미군 문서들로 민통선이 전투 기간 중에 설정되었음을 보여줬다. 한모니까가 발췌한 문서에서 “미국·UN과 연합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인의 군사작전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전투 기간 중에” 설치되었다고 하였고, 민북지역 영농문제를 다루면서 발췌된 문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였다.<sup>5)</sup> 민간인 영농은 귀농선(민통선)을 기준으로 제한되었고(엄대용, 2002), 1954년 5월 11일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UN군에서 한

5) Samuel L. Myers, “Control of Civilians in Forward Areas(U)” (1962. 9. 7), RG 338, Correspondence of General Officers, 1959-1959 [Entry A-1 260], LTG Samuel L. Myers, Deputy Commanding General, 1962 (Secret)  
Samuel S. Neill, “Squatters along the DMZ” (1962. 8. 31), RG 338, Correspondence of General Officers, 1959-1959 [Entry A-1 260], LTG Samuel L. Myers, Deputy Commanding General, 1962 (Secret) (한모니까, 2020)

국군으로 이양함으로써 영농지역은 귀농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확대되었다(정해용, 2017). 이를 계기로 귀농선 북방지역에는 다수의 민북마을이 형성되었다(정해용, 2017).

민통선은 움직이는 선으로 그 범위는 계속 축소하고 있다. 1981년 「군사시설보호법」에 “휴전선남방 5km 내지 20km 범위 내”로 최초 명시된 후 1993년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10km에서 남방 25km 사이”로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 범위의 축소는 1997년 개정안에서 “군사분계선 남방 15km 범위 내”로 나타났고, 기존법안 폐지 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 시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로 민통선의 공간적 범위가 또다시 축소되었다. 민통선의 북상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민통선 이북땅에 경작지 때문이었다. 민통선은 이와 같은 연유로 수차례에 걸쳐 이동하였고, 그 범위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5km에서 현재 10km범위로 축소되었다(표 1). 그로부터 현재 까지 법률상 민통선의 공간적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국방부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이 변화되어 왔고(표 2), 실제 민통선은 지속해서 북상하면서 범위가 감소하고 있다(그림 4). 민통선 북상으로 군 통제 범위를 벗어난 마을은 민북마을에서 해제되었다.

[표 1] 법률 상의 민간인 통제선 범위 변화(정해용, 2017)

구분	민간인 통제선 범위	비고
군사시설보호법(1981.12.31.)	휴전선남방 5km 내지 20km 범위 내	최초 명시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군사분계선 10km에서 남방 25km 사이	범위 변경
군사시설보호법(1997.1.13.)	군사분계선 남방 15km 범위 내	범위 축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군사분계선 남방 10km 범위 내	범위 축소

## 2. 민북마을의 이해

### ■ 민북마을의 개념 및 현황

민북마을은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DMZ 접경지역 내의 생활 공간으로 민통선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민북마을 또는 민통선마을로 불린다. 1953년 휴전이 협정되면서 DMZ 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촌락은 판문점 인근의 대성동 마을이다(전상인·이종겸, 2017). 이듬해 귀농선의 형성과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됨으로써 다수의 민북마을이 건설되었다. 민북마을은 강원도, 경기도에 만들어졌으며, 총 123곳이 형성되었다(표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체 및 완화로 현재 민북마을의 수는 54곳으로 [표 4]와 같다.

[표 2] 지역유형별 민북마을의 수(초기) (정해용, 2017 재구성)

지역	자립 안정촌	전략촌		특수촌	계	
		재건촌	통일촌			
강원도	철원군	7	6	1	-	14
	화천군	2	1	-	-	3
	양구군	5	2	-	-	7
	인제군	2	-	-	-	2
	고성군	4	-	-	-	4
	소계	20	9	1	-	30
경기도	파주시	12	-	1	2	15
	연천군	26	3	-	-	29
	김포시	14	-	-	-	14
	소계	52	3	1	2	58
인천	강화군	35	-	-	-	35
	소계	35	-	-	-	35
총계	107	12	2	2	123	

[표 3] 지역유형별 민복마을의 감소 수 (정해용, 2017 재구성)

지역	자립 안정촌	전략촌		특수촌	계	
		재건촌	통일촌			
강원도	철원군	1	3	1	-	5
	화천군	0	0	-	-	-
	양구군	4	2	-	-	6
	인제군	0	-	-	-	-
	고성군	0	-	-	-	-
	소계	5	5	1	-	11
경기도	파주시	0	-	1	2	3
	연천군	1	0	-	-	1
	김포시	14	-	-	-	14
	소계	15	0	1	2	18
인천	강화군	25	-	-	-	25
	소계	25	-	-	-	25
총계		45	5	2	2	54

[표 4] 민복마을의 현황

지역	마을명	마을유형	
경기도	연천군 중면	자립안정촌	
	파주시	진동면	실향민촌(특수촌)
		군내면	백연리
	조산리		비무장지대촌(특수촌)
	김포시	보구곶리	자립안정촌
		용강리	
		조강1리	
		조강2리	
		개곡1리	
		개곡2리	
		시암1리	
		시암2리	
		마조1리	
		마조2리	
		마근포리	
		가금1리	
		가금2리	
		양태2리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자립안정촌
			북성1리	
			북성2리	
			교산1리	
			교산2리	
			인화1리	
			인화2리	
		송해면	당산리	
		교동면	봉소리	
			고구1리	
			고구2리	
			인사리	
			지석리	
			무학리	
			서한리	
			동산리	
			대룡1리	
			대룡2리	
			읍내리	
			상용리	
삼선1리				
삼선2리				
난정1리				
난정2리				
양갑리				
강원도	연천군	중면	현1리	자립안정촌
			현2리	
			현3리	
		진동면	오유1리	재건촌
			오유2리	
		군내면	만대리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재건촌
		근남면	마현1리	자립안정촌
			마현2리	재건촌
		동송읍	이길리	재건촌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 ■ 민북마을의 유형

민북마을은 설립목적과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으로 구분한다.<sup>6)</sup> 자립안정촌은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UN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면서 민통선 내 경작 가능지역에서 원주민과 영세농이 정착하여 형성한 마을로(이승연, 2012), 한국전쟁 직후 허술한 출입제한을 틈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 대부분이다(전상인·이종겸, 2017). 자립안정촌은 군 작전과 보안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농업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인 만큼, 일반 농촌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박한솔 외, 2021).

재건촌은 자립안정촌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북선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된 마을이다(이승연, 2012; 전상인·이종겸, 2017). 그러나 준비 및 계획의 부족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부족, 외지인과 연고자의 혼합입주에서 발생한 갈등, 토지분배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박영철·김영봉, 1997). 재건촌은 철원군 6곳, 연천군 3곳, 양구군 2곳, 화천군 1곳으로 총 12곳에 건설되었고, 현재는 철원군 3곳, 양구군 2곳 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철원군 재건촌 중 한 곳인 이길리마을이 민통선 이남지역으로 집단이주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원군의 재건촌은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통일촌은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북선전 기능을 강화를 통한 전략방어 목적으로 1973년 건설된 마을이다(전상인·이종겸, 2017; 박한솔 외, 2020). 통일촌은 국방부 등 8~9개 중앙 정부 부처의 지원으로 마을 조성 계획이 수립될 정도로 정부차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마을이다(김일한, 2016). 철원군 유곡리와 파주시 백연리 두 지역에만 조성되었으며 입주자 선발 기준과 함께 경작지와 주택을 포함한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었다.

---

6) 민북마을은 입주 및 거주 유무에 따라 입주마을과 미입주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주마을만을 살펴보았다.

## ■ 민북마을의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

도시의 쇠퇴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이다(김광중 외, 2010). 일반적으로 도시쇠퇴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택 및 주거환경의 물리적 쇠퇴가 동반되는 것으로 이해되며(엄상근·남유섭, 2014; 노화동, 2018),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급격화 도시화는 도시쇠퇴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편리함도 있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집중화와 함께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유출로 지역사회의 쇠퇴,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인구절벽’의 상황이다. 인구절벽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촌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현재 지방소멸위험지수<sup>7)</sup>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의 문제점은 향후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지역은 소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철원군 근북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유곡리는 철원군 근북면의 유일한 취락지이다(박한술 외, 2020). 2016년 8월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 0.068로 전국 1위(강원도민일보, 2017)에 꼽혔던 철원 근북면은 2021년 3월 통계청 기준 0.028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지역일 것이다(표5). 이러한 이유는 일반 농촌마을보다 접근성이 매우 낮고, 관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7)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젊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 1.5이상 : 소멸 저위험 지역  
- 1.0-1.5미만 : 정상 단계 지역  
- 0.5-1.0미만 : 소멸 주의 단계 지역  
- 0.2-0.5 미만 : 소멸 위험 진입 지역  
- 0.2 미만 : 소멸고위험 지역

[표 5] 철원군 근북면 인구 현황(2021.3) (출처:통계청)

연령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	-	-	-	-	-	-	-	-	-	-	-	-	-	-	세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89	94	99	이
인구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상
총계	1	1	0	3	3	5	7	9	6	14	18	20	14	2	1	0	0
남자	1	0	0	2	3	2	5	6	4	3	6	9	7	2	0	0	0
여자	0	1	0	1	0	3	2	3	2	11	12	11	7	0	1	0	0

■ 민북마을 연구 동향(선행연구)

DMZ와 DMZ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분야는 생태와 환경, 관광 분야,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민북마을은 접경지역의 유산으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북마을 연구도 DMZ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대에 민통선 북상과 민북마을의 해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DMZ접경지역의 자연 환경, 관광, 평화, 통일 등에 주목하였다. 2015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심포지엄을 계기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유곡리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장소 기억을 바탕으로 마을의 장소성을 도출하고, 이에 마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대용(2002)은 철원군 대마리에 위치한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사회·공간적 특성과 민통선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대응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승연(2012)은 민북마을을 농촌마을 환경계획 사례를 통하여 민북마을 해제 예정인 양지리의 마을환경계획을 하였다. 정해용(2017)은 DMZ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조성아(2017)은 유곡리의 일상적 정원에 주목하여 유곡리의 조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유곡



리 정원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박한솔 외(2020)은 민북마을을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의 개념으로 이길리와 유곡리의 민북마을을 공간 구조, 주민 공동체 등을 살펴보았다(표 6).

[표 6] 민북마을 관련 선행연구 (강원도 중심)

연구자	연구 내용	대상지
엄대용(2002)	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지속적인 민통선 복상에 주목하여 대마리의 조성과정과 사회적·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민통선 해제에 대한 주민 인식과 대응양상을 조사하였다.	철원군 대마리
이승연(2012)	민통선의 복상으로 민북마을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양지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민북마을 환경계획을 하였다. 그러나 민북마을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농촌마을로 바라보고 마을환경계획을 하였다.	철원군 양지리
이태희(2012)	민북마을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자산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GIS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민북마을의 분포와 변화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미시적 요소는 다루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내 민북마을 전체
이희연·김무한 (2016)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유곡리의 장소 브랜딩을 위한 킨텐츠 발굴 작업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장소성 발굴 및 장소 브랜딩에 대해 고찰하였다.	철원 유곡리
전상인·이종겸 (2017)	고도 근대주의의 산물로 국가촌락 사업에 대해 주목하여 유곡리를 사례로 연구했지만 국가 촌락 계획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철원 유곡리
조성아(2017)	유곡리의 일상적 정원에 주목하여 유곡리의 조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유곡리의 일상적 정원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철원 유곡리
박소영 외(2018)	철원군 유곡리와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화 하였다. 그러나 주민 인터뷰의 수가 현저히 적고, 친밀감 형성 부족으로 많은 이야기를 도출해 낼 수 없었다.	양구 해안면, 철원 유곡리
박한솔 외(2020)	민북마을을 살아있는 유산의 개념으로 이길리와 유곡리의 민북마을을 공간, 사회적 특성, 주민 공동체 등을 살펴보았다.	철원 이길리, 유곡리

## 2절. 민북마을의 가치요소와 자원유형

### 1. 민북마을의 가치요소와 미래 잠재성

민북마을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지역 자산으로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북한과의 대치 흔적이 남아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2000년대 들어 DMZ에 대한 수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였지만 민북마을과 무형자원에 대한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북마을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많은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민북마을의 지역자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민북마을은 국가의 계획하에 뚜렷한 한가지의 목적성만을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국가, 군사 등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가에게 외면 당했다. 어떤 지역보다도 개발 및 보전에 후순위 대상이었다. 민북마을은 고유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농촌 마을과는 차별화된 지역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북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우선이다. 민북마을의 지역자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마을 환경, 더 나아가 먼 미래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2010)은 DMZ 일대의 자원을 유형화하고 대표 자원 속성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7). 이 연구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DMZ의 5개 주요 자원 보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멸종위기종의 수(41%), 문화재(27%), 비무장지대 면적(18%), 민북마을(8%), 관문점(6%)로 나타났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한 많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생태 및 자연 자원, 역사자원, 안보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 DMZ 일원의 대표자원은 앞으로 접경지역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는 민북마을에 대한 보전이나 대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과의 대치 및 선전을 위해 건설된 민북마을을 주목하고, 오랜시간 통제 지역에 적응하고 산 주민들의 생활방식, 민북마을의 형성과정, 삶의 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지역 자원으로써 그 가치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DMZ일원의 대표 자원 속성(출처 : 강원발전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 2009,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연구자 일부 수정)

주요자원		내용
1	비무장지대(DMZ) 공간	군사분계선 전후 1~2km, 총 길이 248km, 면적 907 km <sup>2</sup> 의 비무장지대 내부 공간
2	멸종위기종의 수	저어새, 개리, 두루미, 독수리, 산양, 수달 등 82종
3	하천(습지)과 유역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남강 등
4	민통선 내부 산림	가칠봉, 대우산, 향로봉, 건봉산 등 보전된 산림
5	역사유적/문화재	선사유적, 철원 궁예성, 각종 묘(왕릉), 산성, 건봉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43점
6	전적자원	관문점, 임진각, 6.25 격전지, 남침용 땅굴, 무장공비 침투로 등 17개소
7	민북마을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 통일촌, 해마루촌, 연천군 횡산리, 철원군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유곡리(통일촌), 생창리, 마현리 등 10개소

## 2. 민북마을의 특징 및 자원

민북마을은 일반 농촌마을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이고, 군사적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적 기능이 퇴색되었고, 목적성이 없어진 마을은 일반 농촌마을과 같이 국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DMZ 일원의 주요 자원으로 꼽히지만 일반 농촌마을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민북마을의 특징들이 훼손되고 있다.

농촌마을과 구별되는 민북마을의 특징은 군사적 요인과 밀접하다. 첫째, 자연환경과 마을의 배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산임수 혹은 자연과 조화되는 형태를 띠는 농촌마을과는 달리 민북마을은 완벽하게 계획된 마을이며, 북쪽을 향한 자연적 장애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군사관련시설의 유무이다. 민북마을 내에는 방공호(주민대피시설)가 모두 설치되어있다(그림 4). 마을 건립당시부터 방공호가 존재하던 마을도 있었지만, 없던 마을이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민북마을에 설치되었다. 또한 통일촌에는 무기고가 존재한다. 하지만 필요성이 없어져 유곡리 통일촌의 무기고는 결국 철거되었다. 셋째, 군의 출입 통제와 감시이다. 민북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지만 군의 통제와 감시는 언제나 함께하였다. 저녁이면 군인이 불시에 방문하여 점호를 하였다. 현재도 마을 주민은 출입증이 있어야만 진입가능하다. 방문객은 인적사항과 방문목적을 적은 후 임시 출입증을 발부받아야 진입할 수 있고(그림 6), 민통선 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통행은 불가하다. 넷째, 가구 호수(주택번호)의 유무이다(그림 5). 민북마을은 집마다 호수가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군 초소에서는 물론 마을에서도 주민 서로가 호수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민북마을은 국가의 통제와 함께 지형적 위치, 물리적 환경, 경관, 문화, 주민들의 삶까지 민북마을의 특징이자 문화로 변화되었다.



그림 4 유곡리 민방공 대피소(연구자 촬영)    그림 5 민북마을 주택번호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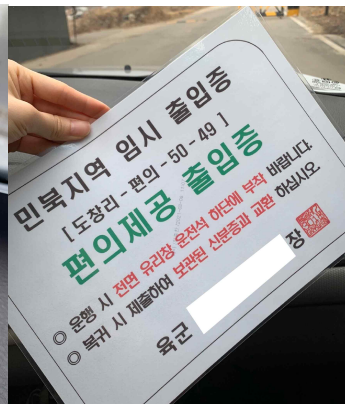


그림 6 도창리 검문소 임시 출입증(연구자 촬영)

### 3절. 장소성과 장소기억

#### 1. 장소와 장소성

장소(place)란 사람이 살거나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물리적 형태가 아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소는 환경·경관·의식·일상적인 일·다른 사람들·개인적인 체험·가정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들과 다른 장소들과의 맥락 속에서 느껴진다. 장소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 개인, 사회, 집단의 경험 등 다양한 연결고리로서 의미를 갖는다. 장소는 개인의 경험과 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장소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장소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76)는 장소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고찰하였다. 이에 모든 장소는 물리적이고 경관을 가지며, 자연적 혹은 물리적 환경과 공간은 문화가 포함되는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부여될 때 진정한 장소가 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자연물과 인공물, 활동과 기능,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여된 의미가 종합된 총체적인 실체라고 말하였다.

루커만(F.Lukermann, 1964)은 장소의 개념을 위치,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 공간적 상호작용에 의한 순환 구조, 국지성, 형성성, 의미의 여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장소는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며, 고유한 양상불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의미를 갖는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았다.<sup>8)</sup>

슐츠(Schulz, 1972)는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이고, 물질, 재질, 형상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totality)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원히 지속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환경과 인간과의 상호 작용에서

---

8)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공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 28-29에서 재인용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푸투안(Yi-Fu Tuan, 1977)은 공간은 움직이는 곳이고, 움직임 중 정지가 일어나는 곳을 장소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안식처, 안전과 애정을 느끼는 고요한 중심으로 인간활동의 중심, 소세계라고 하였다.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경험을 통하여 낯선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다.

엔트리킨(Entrikin, 1991)은 사건, 사물, 행위의 영역적 맥락을 의미하고,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과 의미 중심으로서의 장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석환·황기원(1997)은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특정한 활동과 인간에게 안전과 편안함 등의 의미가 부여된 복합 개념이라고 하였다.

백선혜(2004)는 인간의 인지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간적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종합적 실체라고 하였다.

[표 8] 장소의 정의(홍성희·박준서·임승빈, (2011), 연구자 재구성)

연구자	내용	물리적	시간	인간 행동	의미
F.Lukermann (1964)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며, 고유한 양상불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의미를 갖는 복합적인 통합체	○	○		○
Schulz (1972)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 물질, 재질, 형상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	○		○	○
Yi-Fu Tuan (1977)	움직임 중 정지가 일어나는 곳.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안식처, 안전과 애정을 느끼는 고요한 중심으로 인간활동의 중심, 소세계			○	○
Entrikin (1991)	사건, 사물, 행위의 영역적 맥락	○		○	○
이석환·황기 원(1997)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특정한 활동과 인간에게 안전과 편안함 등의 의미가 부여된 복합 개념	○		○	○
백선혜 (2004)	인간의 인지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간적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종합적 실체	○		○	○

장소성이라는 용어는 아직 무엇이라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장소성은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였다.

에드워드 켈프(Relph, 1976)는 장소의 세가지 구성요소(물리적 조건, 인간 행동, 의미)는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이들 요소들이 시·공간적 맥락을 가지게 되고,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장소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푸 투안(Yi-Fu Tuan, 1997)은 장소성의 형성 요소를 시간과 가시성으로 보았고, 인간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말하였다.

이석환·황기원(1997)은 장소감(sense of place)과 장소성(placeness)을 구분하여 장소성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소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집단적 국면으로 나타나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나타내는 종합적 특질이 장소정신이며, 상대적으로 가변성을 지니는 인간의 소환경에 대한 의식적 앎이 장소감이다. 따라서 장소성은 장소 정신과 장소감의 변증법적 생산물로 보았다.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지각적 국면, 그리고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실존적 국면에 제대로 부합함으로써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애착을 유발하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 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질이라고 하였다.

백선혜(2004)는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장소와 장소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장소란 물리적, 시간, 인간활동, 의미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성 형성에 관해서는 장소성의 형성 요인을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형성 구조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그것이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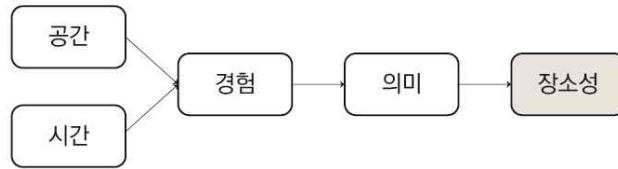


그림 7 장소성 형성 과정  
(홍성희·박준서·임승빈, (2011), 연구자 재구성)

## 2. 장소기억의 개념과 특성

기억은 관념적이고 모호해 학문적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억이 학문적 대상으로 다뤄지고, 효용성도 갖게 되었다. 장소기억은 ‘기억’에 가치를 둔 관점으로 철학, 역사학, 지리학, 조경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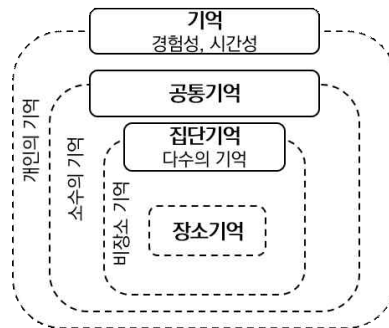


그림 8 기억의 층위  
(권영재, 2016, 연구자 재구성)

장소기억의 범위는 개인적인 기억의 범위에서부터 소수, 다수의 집단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8). 최근의 장소기억 개념은 주로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기억과 아스만부부의 ‘문화적 기억’에 기초한다. 모리스 알박스는 기억을 사회적 혹은 집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를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기억의 주체가 개인이고 개인들의 회상이 존재할지라도, 실제 개인들은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만 기억하

고 있다는 것이다.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집단기억은 개인들의 회상을 보증해 주는 기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얀 아스만(Han Assmann)과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이 고안한 문화적 기억은 기억이 개인적 차원 혹은 추상적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재현에 의해 저장되고 전승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기억의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 기억을 통한 다양한 지식들의 보존과 전승을 강조하는 개념이다(태지호, 2013). 두 개념을 종합해보면 장소기억은 다양한 개인의 기억이 모여 단순히 추상적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공공성에 기반한 효용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보통 시간에 흐름에 따라 흐려지고, 끊임없이 왜곡되며 부정확하다. 이는 장소기억이 과연 이론적 가치와 객관적 효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한다. 또한 기록은 공적이고 객관적 산물이지만 기억은 사적이고 이미지 단편적이며 주관적인 산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록의 역사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이란 전쟁의 승리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정보 또한 일반화된 정보만을 기록한다. 오히려 집단기억이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기록보다 기억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은 기존 역사 연구에서 알 수 없었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공적으로 말할 수 없던 것에 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아직 기억정보가 남은 근대의 연구에 있어 기억은 중요한 매체이며, 기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박재민, 2013).

장소기억에 기반한 장소성은 집단 기억에 의해 공공적 특성을 갖는다. 장소와 장소성의 구성요소(물리적 조건, 시간, 경험, 의미)에 공공성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9).

[표 9] 장소기억의 형성 요소(권영재, 2016, 연구자 재구성)

형성요소	개념
물리적 공간	물리적, 사회적 소환경으로서 경험을 통해 특정한 장소성을 가지는 특성
시간	대상이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며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는 특성
경험	대상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가져지는 특성
의미	인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과 공간,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특성
공공성	다수와의 관계에서 형성 및 강화되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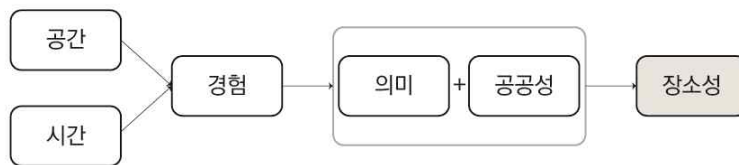


그림 9 장소기억기반의 장소성 형성 과정

## 제3장 대상지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 1절. 대상지의 이해

#### 1. 유곡리 민복마을의 개요



그림 10 유곡리 통일촌의 위치 (출처 : 구글맵, 연구자 재구성)

대상지인 철원군 유곡리 마을은 남방한계선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만들어진 통일촌 중 한 곳이다(그림 10). 통일촌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대 북한 선전 및 수복지역 이주정책에 따라 민통선 안에 조성된 마을이다. 이스라엘 키부츠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북한 선전 마을로 건설되었다. 통일촌은 1973년에 조성되었는데 당시 파주시 백연리와 함께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 2곳에 만들어졌다. 초기에 총 60세대가 입주하였지만 현재 실거주자는 69명으로 확인하였다.

유곡리마을은 2개의 검문소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464번 지방도에 위치해 있고, 도창리 검문소와 이길리 검문소로 접근 가능하다(그림 11). 방문할 때 방문 목적과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임시 출입증

을 발부받는다(그림 6). 임시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민통선 지역을 자유롭게 확보할 순 없다. 특히, 저녁시간에는 방문 목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면 군으로부터 제재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는 유곡리로 향하는 14번 농촌 마을버스가 운행중이다. 와수리부터 유곡리를 왕복하는 버스는 와수로타리 기준 7:00, 8:40, 11:10, 13:00, 15:10, 18:30 총 6번 운행한다. 하지만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도창리 검문소에서 하차하여야 한다.



그림 11 이길리 검문소와 도창리 검문소  
(좌: 연구자 촬영, 우: 네이버 블로그)

## 2. 유곡리 민북마을의 형성과정

유곡리 마을은 총 60세대로 구성되었다. 유곡리는 이전의 재건촌과는 달리 정부의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선전 마을이다. 한 가구당 15평 주택 1채, 논 3,300평, 밭 3,000평의 경작권, 2가구에 1대씩 경운기, 소 1마리,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당시 유곡리의 경쟁은 치열했고, 노동력, 가족 수까지 5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입주 기준은 까다로웠다. 군 제대 장병 30세대와 일반 농민 30세대로 선발하였다.

통일촌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부터였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

면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시찰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1973년 3월 5일 내무부가 주관하여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여 통일촌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당시 금액으로 3억 3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다. 통일촌 개간 사업은 1973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고, 통일촌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는 1973년 6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1973년 8월 22일 파주시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에서 통일촌 입주식이 시행되었다(그림 12).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1년 3개월 만에,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입주까지 완료되었다.



그림 12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 모습  
(출처 : 국가기록원)

### 3. 마을구조

유골리 마을은 국가 주도하에 계획된 마을이자 선전마을로 독특한 마을구조를 볼 수 있다. 마을 내 도로는 모두 4m로 일정하고 격자형이다. 주 진입로인 한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호수 정렬이 나뉘고, 북서쪽 끝에 위치한 집을 1호 집으로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남서쪽 최단에 있는 60호까지 주택 번호가 할당되었다(그림 13). 북측 맨 앞 중앙 2블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 대지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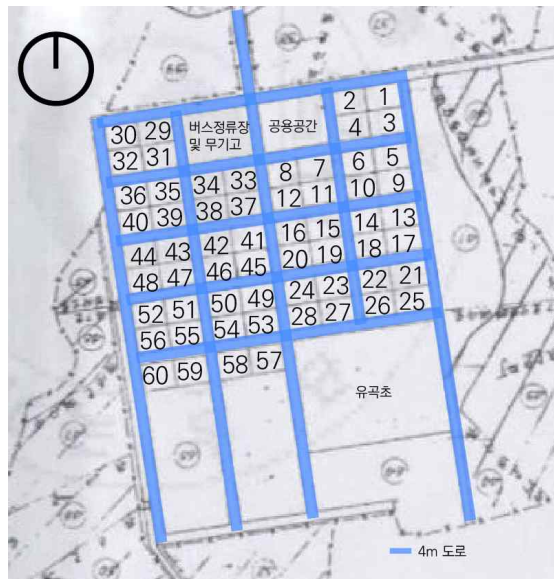


그림 13 단지 내 가로체계와 가구 호수 배치  
(출처 : 국가기록원)

통일촌 건설 목적은 농지 개간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유희농지를 개간하여 식량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대북선전에 대한 목적이 더 컸다. 모든 마을 및 건물 입구가 북한 오성산을 향해 배치하였다. 1대지 당 주택 1채와 부속 건물 1채가 나란히 지어졌고, 대지의 남쪽부분에 배치하였다. 북한을 향한 선전 목적을 위해 대지의 북쪽 부분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어야 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군부대 감시 하에 <그림14>와 같이 앞마당에 일정한 너비로 잔디

와 나무를 심어야만 했다.



그림 14 유곡리 입주 당시 전경  
(출처 좌:SBS스페셜 ‘민간인 통제구역’ / 우: 국가기록원 영상)

마을의 공용공간은 마을의 가장 안쪽과 바깥쪽에 배치되었다. 마을의 맨 안쪽에는 초등학교가 배치되었고, 57호, 58호 뒤쪽으로는 학교 관사가 배치되었다. 마을 맨 앞 중앙 2블록에는 마을 공용 공간이 배치되었다. 그 중 서측 블록에는 버스정류장, 무기고, 광장이 조성되었고, 동측 블록에는 통일촌 교회와 마을회관, 향나무 기념식수 2그루가 조성되었다(그림16). 2002년에는 입주 30년을 기념하여 마을 광장에는 통일촌 입주기념비를 조성하였다(그림 15).



그림 15 2002년 만든 통일촌  
입주기념비  
(연구자 촬영)



그림 16 1973년 입주 당시 심어진 기념식수  
(연구자 촬영)



## 2절. 대상지 현황 및 분석

### 1. 대상지 현황 및 분석



그림 17 유곡리 마을 현황

유곡리 마을은 대북 선전 기능을 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지어진 통일촌이다. 따라서 본래 마을의 기능보다는 전시적 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비일상적인 통일촌 유곡리 마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주택건물이나 부속건물, 앞마당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 ■ 건축물의 확장

주택과 부속건물 사이에 잔디를 심도록 했던 빈 공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73년에는 각 부여된 필지에는 15평 주택과 부속건물 1채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필요했던 관상학적인 잔디를 없애면서 집을 확장하였고, 화장실 확장공사, 주차장 설치 등 건축물의 면적이 넓어졌다. 현재 50호를 제외한 59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단 한가구인 7호집만이 본래의 주택 형태를 띄고 있다(그림 18). 7호집은 현재 빈집으로, 부속건물은 철거하여 남아있지 않지만 1973년 지어졌을 당시 가옥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림 18 주택 원형(7호집)  
(연구자 촬영 2021. 3. 18)



그림 19 주택 확장(55호)  
(연구자 촬영 2021. 4. 2)

### ■ 잔디마당-텃밭-비닐하우스-태양광으로의 변화

대부분의 가구가 비닐하우스를 필지 내에 설치하였다(그림 19). 비닐하우스는 군사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자,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잔디는 전부 걷어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물을 심었다. 90년대 후반에는 군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비닐하우스는 주로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를 재배하거나 못자리를 하기위해 활용된다. 유곡리 마을은 유입인구가 없어 대부분 주민들이 마을 건설 이래로 살고 있다. 대부분 30대에 입주한 1세대 주민들은 40여년이 지나 노쇠하였다. 이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곳

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여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만 가능하여 몇 가구만이 설치하였다.<sup>9)</sup>



그림 20 비닐하우스  
(연구자 촬영 2021. 4. 2.)



그림 21 개조된 주택과 주택 정원  
(연구자 촬영 2021. 4. 2.)



그림 22 비닐하우스 제거 후 태양광 설치  
(연구자 촬영 2021. 4. 2.)

9)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해요. 지금도 자기집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인 가구가 7가구 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단니까. (25호 인터뷰)

## 제4장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해석

### 1절. 장소기억 개념을 통한 주민 일상 생활 기억 수집

#### 1. 마을 내 주요 장소 추출

주민들의 장소기억을 수집하기에 앞서 마을 내 특징적인 장소를 나열하였고, 이 장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자 하였다. 사실 유곡리 마을 내 장소는 주민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지 모든 곳이 물리적 자원, 시간, 경험의 장소이다. 그러나 인터뷰 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흘러 인터뷰 집단의 기억을 끄집어 내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 내 주요 장소를 살펴보았다.

마을 내 장소는 총 9곳으로 무기고, 유곡리 주민 대피소, 철원 평화마을 서울 캠핑장(구. 유곡초등학교), 통일촌 교회, 버스정류장 및 광장, 마을 공용공간, 향나무 기념 식수, 7호집, 오성산 9개로 분류하였다(표 10). 무기고는 현재 없지만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내재되어 있을거라 판단하였고, 이에 무기고도 포함하였다. 마을 건립 당시 버스는 한 대 배치되었고, 버스정류장은 초기에 하루에 단 2번만 왕복하였다. 촌락에서의 중요한 장소로 인간이 생산을 위해 시장을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마을 광장은 1973년에도 공용공간으로 계획되었고, 현재는 마을 경로당과 함께 새뜰마을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체력단련시설이 조성되어있다.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공공근로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이 아닌 마을 광장이 주민 만남의 장소이다. 유곡리 마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서면 북한에 위치한 오성산이 보인다. 오성산은 북한과 대치 및 소통의 장소였다. 과거 오성산에서는 매일 대남방송이 들려왔던 곳이다.

[표 10] 마을 공간 자원

마을 내 주요 장소 추출		
무기고	유곡리 주민 대피소(방공호)	서울캠핑장(구.유곡초)
		
통일촌 교회	버스정류장 및 광장	마을 공용공간
		
향나무 기념식수	7호집	오성산
		

## 2절.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해석 방법

### 1. 마을 내 주요 장소를 통한 일상 생활 기억 심층 인터뷰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추출된 장소를 바탕으로 1세대 주민들의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질문은 크게 시간적 범위(장년기, 노년기)와 내용적 범위(노동, 교육, 상업, 여가 등)로 나누었다(표 12). 인터뷰는 준비된 주요 질문을 토대로 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을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기억을 수집하였다. 인터뷰 중간에 필요한 관련 질문이나 도출되는 내용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전반적인 장소에 대한 개인의 기억 수집이고, 질문을 통해 연구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sup>10)</sup>

[표 11] 인터뷰 질문(예시)

부서	호수
공통질문	민북마을(유곡리)는 어떤 곳인가요? 유곡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곡리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유곡리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을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사건 중심의 인터뷰	(일반)입주 당시 기억 남는 것들이 있으세요? (일반)유곡리마을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군사)무기고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군사)대남방송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군사)북한과 관련해서 기억남는 것이 있으세요? (학교)유곡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교회)통일촌교회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업무)농사를 지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문화)음식이나 주로 했던 놀이, 여가활동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기타)거주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가설지향적, 대립형 질문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캠핑장으로 이용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주하자마자 후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미소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10) 인터뷰 방법은 박재민(2013)의 “장소기억으로 해석한 근대 산업경관”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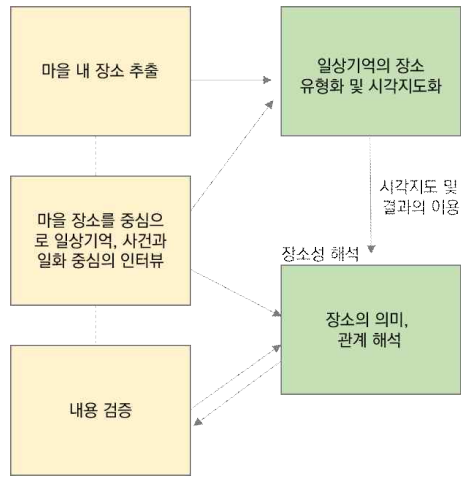


그림 23 주민 인터뷰 실행 과정

[표 12] 마을 주민 인터뷰집단

	호수	성별	인터뷰 시간
1	6	여	19:32
2	17	여	50:21
3	25	남,여	53:33
4	39	남,여	1:08:32
5	53	여	44:53
6	55	여	33:04
7	58	여	48:34
8	15	여	42:33
9	46	남	21:43
10	16	여	43:21
11	42	남,여	49:32

인터뷰 집단은 마을 이장님께 적절한 정보제공자를 제공 받아 1973년도 입주민인 1세대 주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주민 집에서 진행되었고, 1:1 혹은 1:2로 약 40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그림 27). 주민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을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인터뷰는 3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하였고, 약 40분 내외의 시간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하였다. 현재 1세대 거주 가구는 60가구 중 총 24가구이고, 빈집(외지왕래, 철거 가구 포함)은 21가구이다. 연구자는 1세대 주민들의 기억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자 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노쇠하여 인터뷰가 불가능한 가구가 많았다. 인터뷰는 24가구 중 인터뷰 거절 혹은 불가능한 가구를 제외하고, 총 11가구 14명을 인터뷰하였다(표 13).



그림 24 주민 심층 인터뷰 실행

## 2. 인터뷰 수집 및 분류

본 연구에서 장소기억은 장소를 중심으로 남겨진 일상 생활 기억으로 보았다. 장소기억과 장소성의 형성요인은 물리적 공간, 시간, 경험, 의미, 공공성이 있다. 먼저 수집된 인터뷰를 시각화 및 나열한 후, 형성 요인 4가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분류하여, 유곡리 마을의 장소에 대한 일상 기억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였다.

### ■ 유곡리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살펴보기 전에 공통질문으로 유곡리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유의미한 답변만을 추출했을 때, 긍정정인 답변으로는 ‘안전한 마을’, ‘보호받는 마을’ 이라고 답변하였다. 마을은 점점 쇠퇴하고, 주민들도 노쇠하고 있어 북한이 도발할지라도 유곡리 마을에 피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년기에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현재는 나라에 보호받고 있어 안전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사라질 마을’, ‘노인들만 사는 마을’ 이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이곳에 들어올 사람 하나 없기 때문에 사라질 마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라져 없어질 마을이지 뭐... 여기 누가 들어와” (25호 인터뷰 중)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죠.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살고 싶어요?” (39호 인터뷰 중)

긍정적, 부정적 답변에서 모두 살펴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을에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에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 ■ 입주 당시의 기억

연구자는 개방형 인터뷰로 입주 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였다.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고생’ 과 ‘후회’ 였다.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왔지만 들어와 보니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장병 신분으로 들어온 가구들이 후회의 정도가 심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러했다. 이는 과거 명예와 지위를 획득했던 군인 신분과 농사를 지어본 적 없었기에 그저 호화로운 삶을 살 줄 알았던 것에 대한 박탈감이 누구보다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한번도 지어본적이 없어서 남의 집가서 쪼그려 앉아 배웠어. 고생만 했어, 고생만” (58호 인터뷰)

“시골이지 뭐... 전방이지 전방...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오자마자 후회했어요” (53호 인터뷰)

“집주고, 소키우는돈준다.경운기준다. 해서 좋은줄알고 왔어요. 근데 83 조치법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얻은 건 없어” (39호 인터뷰)

“3년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 처음에는 콩만 먹고 살았어” (25호 인터뷰)

## ■ 군사 관련 기억

유곡리는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전략마을이다. 역사적 기록으로 잘 남겨지지 않았던 주민들이 듣고 본 경험에 의한 기억들이 수집되었다. 오성산은 남북의 대치상황을 나타내는 곳이지만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북으로 오라” 라고 하루에 한글자씩 빨간글씨로 적혀있었다.<sup>11)</sup> 대남방송의 내용은 도발아닌 도발적 내용이 많았고, 대남방송에 적응을 못해 밤을 지새우곤 했던 기억을 수집하였다. 무기고에 대한 기억은 많이 수집하기 어려웠다. 남자 인터뷰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단순히 총기를 보관했고, 훈련을 했다는 보편적인 이야기만이 나왔다.

군인에 의해 등화관제를 실시하고 매일 밤 점호를 하던 당시에 힘들었고, 불편했던 기억들이 있었다. 버스도 하루에 두 번만 운행하였는데, 크기도 크지 않아 주민을 모두 태울 수 없었고, 버스가 오히려 주민들을 피해다녔다고 한다. 밤엔 검은 커텐으로 버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막아야했다.

지뢰를 통한 사건 사고도 있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유곡리 마을 밖은 지뢰가 가득했다. 인근 밭에 고사리를 캐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유곡리 마을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 몰래 산을 넘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다.

“본인들 잘산다는 방송을 하곤 했지. 어떤 자랑을 했냐면 커피를 먹는다고 자랑을 하는거야. 본인들한테는 그게 생소하고, 자랑할만한 물건이었던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군 때문에 많았거든. 그래서 우스웠지.” (25호집 인터뷰)

“어느날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고 자랑을 했었어. 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날이 자랑거리였던거야.(39호집 인터뷰)”

“처음에 들었을때는 무서워서 잠도 못잤어. 밤마다 아이들이 부엌에서 다같이 모여 잤다니까. 북한군이 넘어올까봐.(57호집 인터뷰)”

11) 42호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다.

“방공호는 연평도 사건 이후로 새로 지었어. TV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잠잘 것들, 운동기구 등 다 있어.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 지어놔서 이제 우리는 걸어가기도 힘들어.(25호집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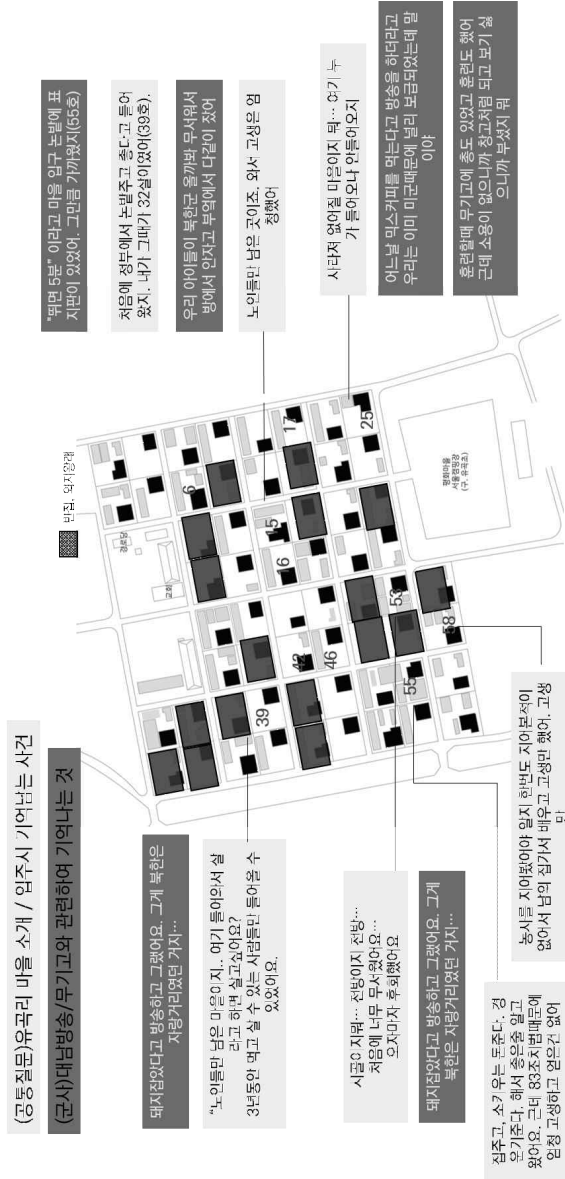


그림 25 입주 당시 및 군사관련 기억

### ■ 유곡초등학교에 대한 기억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마을 내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운동회, 소풍, 급식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는 정말 북적북적하고, 좋았다고 표현하는 주민이 많았다. 유곡초의 운동회는 유곡리의 마을 잔치나 다름 없었다. 왜냐하면 가구마다 자녀들이 한명씩은 있었고, 유일한 마을의 학교 운동회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소풍은 근처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주로 멸공OP나 금강산 철길 아래 개울로 갔다. 유곡초의 급식은 특별했다. 영양사 선생님이 계셨지만,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직접 배식해 주었다고 한다.

“운동회하면 마을 전체가 축제였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학교로 갔지. 줄다리기를 하고, 밭에 끈뭍어서 달리고 그랬어.” (25호집)

“동네 아이들끼리 친한데 가장 많이 있을땐 한 학년에 열댓명도 있었어요.” (46호집)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하곤 했어요.” (48호집)

반면 현재 유곡초가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곡리 주민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고, 관심 또한 없었다. 이에 더해 캠핑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 ■ 여가활동에 대한 기억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어 이동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하느라 주민 대부분은 여가활동을 할 수 없었다. 여가활동이라고 함은 마을 정원을 꾸미거나 인근 민북마을인 정연리 근처 강가에 놀러가거나 군부대 공연을 보러 가는 일 정도였다. 복날이면 돼지를 잡아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벌였다.

“끊어진 금강산 철길로 소풍을 많이 갔었어요. 아니면 근처 개울가 가고

그랬지 뭐... 여긴 놀때도 없었어. (57호집 인터뷰)”

“군 위문공연이 있으면 보러가고 그랬어. 바로 근처에 있는 군부대로 갔어. 군에서 방송을 해줬어 보러오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경운기를 타고, 걸어가서 봤었지. 우리마을 말고 다른 마을사람들까지 다 보러 갔어.” (25호집 인터뷰)



그림 26 학교 여가활동에 관한 기억

## ■ 주거 공간

1973년 입주당시 15평의 집을 주었지만 식구가 늘어나고, 사는데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하나씩 증축하고, 개조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잔디였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입주 당시 심었던 잔디는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했고, 생소했고, 필요없는 요소였다. 이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잔디를 걷어내고 먹고 살 수 있는 식용 작물을 심어 텃밭을 가꾸었다. 이후 80년대 비닐하우스가 유행하여 설치했고, 주로 심는 작물은 고추다.

“1980년대에 하우스가 유행을 했어. 그래서 다 같이 하우스를 가져온거야. 집 앞에 놓으면 가까워서 하기도 좋고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집은 철거했어.(25호집 인터뷰)”

“이북에서 보기에 좋으라고 잔디를 심어야 했었어. 규격까지 정해줬었지. 한 판은 얼마에 총 너비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었지. 그대로 심는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다 걷어내고 농사지었지.(57호 인터뷰)”

## ■ 그외의 기억들

입주 초기에 마을 전체에 이장님 댁에 1대의 전화기만이 설치되었다. 초대 이장은 7호집이었는데, 이장님네 전화가 오면 마을 방송을 해주었다. 그럼 해당 수신자는 이장님 댁으로 끊기기 전에 바로 달려가야 했고, 끊기기도 대다수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마을 내 없어진 공간이 있었다. 바로 슈퍼와 정미소다. 슈퍼는 1호집과 16호집이 운영했다.<sup>12)</sup> 초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상점이 잘 되었지만 점차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서 사라졌다. 정미소가 있던 곳은 현

12) 주민마다 기억이 약간 상이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음.

재 버스정류장 뒷편 창고다. 농협에 쌀을 납품하기 전에는 마을 내 정미소가 있었고, 직접 도정해 먹었다. 하지만 농협에 납품하게 되면서 필요성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그림 27 주택, 암무, 기타 기억

### 3. 일상 생활 기억을 통한 장소성 해석

장소에서 주민 일상 기억의 의미를 파악해 장소성의 구성요소 중 의미요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유곡리 마을 내 주요 장소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며, 장소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였다.

유곡초등학교는 주민들에게 장소성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었다.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의 유곡초등학교는 커뮤니티의 장소였다. 동일한 입주와 비슷한 시기에 2세대가 활동했기 때문에 운동회나 졸업식은 마을 잔치나 다름없었다. 또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어머님들은 학교에서 서로 배식을 하며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2세대가 청년이 되면서 1994년 폐교를 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 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외부인이 출입하는 장소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자연히 갈 수 없는 경계의 장소가 되었다.

#### ■ 통일촌 유곡리의 장소성

수집된 기억을 통한 유곡리 마을의 장소성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형태로만 지어진 공간으로 처음부터 실패한 마을이자 마을이라고 할 수 없었던 마을이다. 전시적 성격이 강했던 집이었기에 물리적 공간인 집, 부속건물, 마당만 덩그러니 주어졌고, 주변에 겨우 초등학교만이 있었다.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여 경비가 삼엄해 바깥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게다가 유곡리 마을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주민들은 4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스럽고, 후회스럽다. 입주 당시부터 가꿔온 집이지만 본인의 집인 주민은 10세대도 채 되지 않는다.

둘째,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군사적 목적은 사라지고, 점차 일상적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유곡리 마을은 분단 이후 1973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지어진 군사적 목적이 뚜렷한 통일촌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비밀상성 속에서 집이라는 일상적 개념이 상충되면서 유곡리 마을은



계속 변화해왔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삶과 직결된 것들의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의 확장과 정원 조성, 비교적 자유로운 입출입, 텃밭에서 하우스, 태양광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리적 구조도 쇠퇴하고 주민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건설당시 70-80년대가 마을의 부흥기이며 인구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2세대가 청년이 되자 다들 민통선 밖으로 나갔고, 자연스레 1세대 주민들만이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곡리 장소성에서 군사적 요소는 다양한 요인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의 북상으로 민북마을이 점차 사라져가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라져가는 민북마을의 가치를 장소기억 개념을 통해 유곡리 민북마을의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민북마을 중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민북마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민북마을을 대상지로 삼았다. 먼저 유곡리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마을 내 주요 장소를 도출하였다.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1:1 또는 1:2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장소를 중심으로 남겨진 개인들의 기억으로 보고, 기억의 장소를 찾고 그 속에 내재된 유곡리 마을의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기억을 통한 유곡리 마을의 장소성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형태로만 지어진 공간으로 처음부터 실패한 마을이자 마을이라고 할 수 없었던 마을이다. 전시적 성격이 강했던 집이었기에 물리적 공간만 덩그러니 주어졌고, 주변에 겨우 초등학교만이 있었다. 게다가 경비가 삼엄해 바깥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게다가 유곡리 마을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주민들은 4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장소이다.

둘째,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군사적 목적은 사라지고, 점차 일상적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유곡리 마을은 국가에 의해 지어진 군사적 목적이 뚜렷한 통일촌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비밀상성 속에서 집이라는 일상적 개념이 상충되면서 유곡리 마을은 계속 변화해왔다.

셋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리적 구조도 쇠퇴하고 주민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민북마을은 접경지역의 유산으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민북마을은 건설 이후 국가에게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또한 주민 유입도 거의 없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민통선 이북지

역에 속한 마을은 군사접경지역으로 개발이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민북마을이 담고 있는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모색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겨진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한 마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생활사와 같은 개인의 경험과 의미에 중심을 둔 심층인터뷰가 역사적 고증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유곡리 마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 집단 인터뷰이가 적어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1) 단행본

-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공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Tuan, Y.F. Space and place :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윤영호, 김미선(공역)(2020), 『공간과 장소 :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서울: 사이.
- 백선희, & 국토문제연구소서울대학교.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 Entrikin, J. Nicholas(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2) 학위 논문

- 권영재(2016). 장소기억기반 공간재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김은성(2013).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노기창(2010).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민윤경(2019).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철원지역 지질공원 활성화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재민(2013). 장소기억으로 해석한 근대 산업경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배기택(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백선희(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엄대용(2002).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 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승연(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민북마을 환경계획.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태희(2012).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해용(2017). 한반도 DMZ 접경지역의 시·공간적 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성아(2017). 정치적 풍경에서 일상적 정원으로 : 유곡리 통일촌 정원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학회지 및 간행논문

- 김광중 외 3(2010),. “특집논문 : 도시 내 지구차원(地區次元)의 쇠퇴실태와 양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p27-42.
- 김영규(2016). “철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찾자.” 『환경논총』, 57, p 57.
- 김일한(2016).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7(1), pp63-93.
- 박한솔·윤승용·조경진.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DMZ 접경지역 민북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철원군 이길리와 유곡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1(6) , pp89-104.
- 이희연·김무한(2016). “통일촌 유곡리 일상화 장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딩,” 『환경논총』, 57, pp62~70.
- 임순정·박정은·이효원(2014).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자산 측정도구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1) , pp169-180.
- 전상인·이종겸(2017).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4), pp27~41.

- 태지호. (2013). “문화적 기억으로서 ‘향수 영화’가 제시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 영화 <씨니> (2011), <건축학개론> (2012)의 ‘기억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pp417-440.
- 한모니까(2020).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 마을’의 형성,” 『북방연구학회』, 24(1), pp59-92.

#### 4) 연구보고서

- 박소영 · 권태상 · 김덕우(2018). “강원도 민북마을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미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춘천, pp.9-55.
- 박영철 · 김영봉(1997).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방안(하)”, 『국토연구원』, 183권, pp.61-73.
- 최성록 · 박은진 · 박성훈. (2010).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가치 추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5)정기간행물(인터넷 뉴스 기사)

- 정계성, “여의도 34.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개발제한 푼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5440/?sc=Naver> (2021년 1월 14일)
- 박창현, “도내 시군 절반 30년내 사라질 위험… 철원 근북면 가장 심각”,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73980>

#### 6) 학술 발표

- 홍성희 · 박준서 · 임승빈. (2011). “장소성 정의 및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v.2011(n.1), pp39-52.

#### 7) 기타

- 국방부 1981, “군사시설 보호법” .
- 국방부 1993, “군사시설 보호법” .
- 국방부 1997, “군사시설 보호법” .

국방부 200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철원군, 『철원군통계연보』  
KOSIS국가통계포털, 『강원도철원군기본통계』

# Abstract

## **A Study of the Placeness Utilizing Everyday Life Place Memory : The Case of You-gok ri Minbuk Viliage in Cheorwon**

Kim Gi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Cheorwon is a major battleground in the Korean War and a border town adjacent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fter the armistice. It has environment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it from other regions. Among them, 'Minbuk Village' built by the state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place that shows the peculiarities of Cheorwon, the border region. Yugok-ri Village, located in Geunbuk-myeon, Cheorwon-gun, which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is one of the Minbuk villages in Cheorwon and is a representative propaganda village. Minbuk Village is a special spac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strategy and should be viewed as a special space that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rural village. Although it can be said to be the main potential resource of the DMZ, it has been neglected and, like general rural villages, the village is expected to disappear due to aging and population hollowing.

This study focused on Minbuk Village, which is the main resource of the DMZ but is marginalized. In particular, the village of Tongilchon in Yugok-ri, located in Geunbuk-myeon, Cheorwon, which is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the lack of accessibility and aging, was selected as the target. Since Minbuk Village is a propaganda village buil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distinguished from other regions by a sense of 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f Yugok-ri village, collect and classify local resources and the memories of residents, and interpret the spatiality of the current Yugok-ri vill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village resource elements of the target site to which the concept of place memory was applied, and to interpret the spatiality of Minbuk Village in Yugok-ri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based on the resource elements.

In this study, place memory was expanded to memory of everyday life, and it was viewed as the memory of everyday life left centered on place.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lace memory, the characteristic places in the village were listed through literature and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centered on these places. A total of 9 places in the village were classified, and based on this, 1:1 or 1: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spatiality of Yugok-ri village through the collected memories can be largely interpreted in three ways. First, as a space built only in physical form, it is a village that failed from the beginning and could not be called a village. Because it was a house with a strong exhibition character, only physical space was given, and there was only an elementary school nearby. Besides, the security was so tight that even going outside was not free. They broke through the great competition, but the reality was different. Moreover, Yugok-ri village has been thoroughly neglected after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hee. Although 40 years have passed, it is still a painful and regrettable place for the residents.

Second, it was built for military purposes, but as time went on, the military purpose disappeared, and it was gradually changing into an ordinary place. Yugok-ri Village is a village of unification with a clear military purpose built by the state. In the midst of this ideology and non-routine, the everyday concept of a house conflicted, and the village of Yugok-ri

continued to change.

Third,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physical structure deteriorated, and the inhabitants were aging together.

Minbuk Village is recognized for its conservation value as a heritage of the border region. However, Minbuk Village has been completely ignored by the state since its construction. Although it is true that villages belonging to the northern region of the Civil Control Line are subject to many regulations in terms of development and land use planning as a military border region, it is important to find directions through the history contained in the village and the memories of lesser-known residents. If further research is continued on the remaining Minbuk villages, it will be helpful in setting the direction of village planning for the coming unification era.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esearch in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history of an in-depth interview centered on personal experiences and meanings such as life history. In addition, since the basic infrastructure of Yugok-ri village is not formed, there are many vacant houses and there are few group interviews, so there is a limitation in collecting various stories.

.....

**keywords** : **Placeness, Sense of Place, Place Memory,  
Tong-il-chon, Minbuk Village**  
***Student Number*** : **2018-24754**